

#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 현 중\*      김 정 희\*\*      강 준 혁\*\*\*  
성균관대학교      을지대학교

본 연구는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전국 성인 16,305명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경로분석과 Hayes(2017)의 Process Macro Model 11을 적용하여 주요 변인 간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주거환경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둘째,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셋째,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고, 이를 통해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삼원 조절-매개효과가 있었다.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으며, 정책 수립 시 신뢰와 참여를 강화하는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주거환경,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대인 신뢰, 사회참여

\* 주저자: 고희중/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745/E-mail: kohj2024@g.skku.edu

\*\* 공동저자: 김정희/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745/E-mail: jeong7kim@g.skku.edu

\*\*\* 교신저자: 강준혁/을지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Tel: 031-740-7199/E-mail: junhyeok@eulji.ac.kr

## I. 서론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 중 주거지에서 자가를 보유하고 안전성 보장 되었을 때, 그리고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 행복감이 높은 국민의 경우 삶의 의미와 성취감 그리고 삶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중호 등, 2024).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보고서의 결과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가보유, 이웃 관계, 안전감 등을 포괄하는 주거환경은 실제 개인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신체적 기능이 약하고 이동성이 제한되는 아동이나 노년기, 심리 정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하교 및 출·퇴근을 해야 하는 청년기와 중·장년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주거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누구든지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환경의 수준과 질에 따라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도 다르게 나타난다(김용욱 등, 2023; 최병소, 이명훈, 2021). 주거환경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 발전 및 도시화에 따라 이러한 주거환경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다(김지영, 김은정, 2019; 최은영, 2019). 이에 따라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주거환경이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문제의 해결이 사회통합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환경이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으며,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거환경의 질적 차이가 개인의 심리적 상태(주관적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연구는 주거환경 연구에서 중요한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경로분석을 통해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 일차원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주거환경과 행복 및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어떠한 조절적 또는 상호작용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즉, 기존 연구는 사회적 요인을 단일 변수로만 취급하거나, 주거환경과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살피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는 각각 주거환경의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로, 이들 간 복합적 상호작용이 주거환경의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조절 및 매개 경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상호작용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Hayes(2017)는 삼원 조절-매개효과가 변수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요인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즉, 기존의 단일 요인 중심의 연구와 달리, 주거환경, 주관적 행복감, 대인 신뢰, 사회참여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써 심리적·사회적 요인의 조합이 사람마다 무엇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는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 심리적 요인(행복감), 사회적 요인(신뢰, 참여) 간의 다차원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주거환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삼원 상호작용하여 영향력을 미치는지 다차원적으로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주거환경,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간 관계

국민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는 다양한 형태의 삶에 대한 욕구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임성미, 이보영, 2016).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환경으로, 그 안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은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건축물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환경으로, 주변 이웃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이주왕, 김재태, 2023). 또한,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주거환경의 구성 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된다(김상호, 2015). 먼저, 사회적 요인은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집단 관계, 지역 공동체, 소속감 등이 있으며(김용주, 서정렬, 2013), 물리적 요인은 주택의

질, 주거비 부담, 주거 이동성, 과밀 정도, 공공지원 주택 여부, 자가소유 등이 있다(Leventhal & Newman, 2010). 이처럼 주거환경은 일상생활 영역을 위하여 안정감, 사회성, 자아존중감, 신뢰감 등 심리적인 환경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김윤옥, 박병남, 김갑열, 2016),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도 한다(Sirgy & Cornwell, 2002).

인간의 주거환경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나경, 2024; 박선숙, 2023).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 및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상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생각, 감정 그리고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성되며(Arpino & De Valk, 2018; pavot & Diener, 2008), 개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신적 건강에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Lombardo et al., 2018; Strine et al., 1008). 또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기보다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로서의 산물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개인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임정하 등, 2017) 삶의 만족도는 개인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Veenhoven, 2007),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갖게 되는 긍정적인 인지 상태로 정의된다(Kraut, 1979). 행복은 행복감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과 감정 반응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포함하며(Diener et al., 1999), 행복의 구성 요인으로는 정서적 평가인 긍정적·부정적 정서와,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가 있다(Diener, 1984). 한편, 행복은 동일한 상황과 조건이어도 사람마다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의 및 측정이 어렵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최병소, 이명훈, 2021),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감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주

관적 행복감이 높은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적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유민상, 2016).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심리학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Gifford(2007)는 환경은 인간의 심리적·정서적·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주거환경, 직장 및 자연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공간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에 영향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환경의 특성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환경이 쾌적할수록 인간은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 웰빙을 촉진하여 주관적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다(Gifford, 2007).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한나와 김승희(2021)는 강원도의 주거빈곤 이동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최병소와 이명훈(2021)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인-환경 적합성에서 환경의 편의성, 쾌적성, 안정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신화경·조인숙(2015)은 서울 및 경기도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만족도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로 김나경(2024)은 광주광역시 이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 접근성과 주거 조건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박선숙(2023)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 면적이 넓고, 주거 형태가 양호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김용욱 등(2023)은 대중교통, 지역 환경, 치안 및 방법, 이웃 관계 등의 주거환경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한재원·이수기(2019)는 대중교통, 보행시설 등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신상준(2017)은 공원이나 운동시설, 안전 관련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국민의 주거환경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국민의 주거환경은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편,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와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와 그 의미가 다르다(박은양, 유현희, 2022). Diener(1984)는 행복감을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정서적 요인에는 행복감을, 인지적 요인으로는 삶의 만족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나타내는 정서 상태이며(윤미리, 이현정, 홍세희, 2020),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다(이지원, 이기학, 2015). 따라서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류영주, 양수진, 2017),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주관적 웰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관적 웰빙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의 축적을 넘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속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포괄하는 것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한다고 보고 있다(Diener, 2000). 특히, 안전성, 청결함, 자연환경,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 주거환경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주관적 행복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복감은 다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Diener (2000)는 이러한 주관적 행복감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 상태가 아닌, 개인의 삶을 평가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적용하면 주거환경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높이고, 이러한 행복감은 다시 삶의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은양, 유현희(2022)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동심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행복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입증하였고, 허은(2021)은 2018년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행복감의 부분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또한, 임정하 등(2017)은 부부 276쌍을 대상으로 행복 추구경향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행복증진활동의 부분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주관적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4.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대인 신뢰의 조절효과

신뢰는 타인에 대한 확신, 언행 및 결정에 기초하여 행동하려는 의지로(McAllister, 1995), 사회적 인 결속 형성 및 유지하는 통합장치이자 사회를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며(Whiteny, 1995), 이를 통해 협동 및 이타적 행동과 같은 자발적인 사회성을 촉진 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신뢰는 개인의 결정사항으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기반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신뢰할만하지 결정하게 된다(peters,

1977). 즉, 타인의 행동이 신뢰할만한지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 및 인지하는 것으로(Mayer & Davis, 1999), 개인에게 신뢰는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putnam, 1997).

Lewis & Weigert(1985)는 최초로 신뢰의 개념을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신뢰는 신뢰 객체가 신뢰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고, 신뢰 주체는 상대방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쌓였을 때 형성된다(Schoorman, Mayer & Davis, 2007) 반면, 정서적 신뢰는 감정 기반의 신뢰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대방을 믿고, 잠재적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형성된다(Lewis & Weigert, 1985). 따라서 타인에 대한 대인 신뢰가 높을수록 관계의 질도 높아지며(Renolds, 1997), 개인에게 있어 인지적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의 조절효과는 사회적 자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일수록 개인 간 신뢰가 강하고, 협력과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putnam, 2000). 따라서 대인 신뢰가 높은 경우 이웃 및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게 되고, 이는 주거환경의 긍정적인 요소를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어 주거환경이 주는 만족감을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대감 강화와 개인의 웰빙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putnam, 2000).

대인 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거환경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인 대인 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이민아와 김경민(2021)은 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으며, 박대훈, 장영철, 김진욱(2015)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심리적 웰빙 간 관계에서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송웅범, 조준, 윤동열(2023)은 공공기관에서 조직공정성과 대인 일탈행동 간 관계에서 상사 신뢰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인 신뢰가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나 정서를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효과성은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및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는 정적(+)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사회참여는 타인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미래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으로(Adler & Goggin, 2005), 자원봉사, 시민단체, 종교활동 모임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양승민, 최재성, 2021; 최가영, 2023).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신은경, 광지영, 2008), 개인은 자신의 사회참여가 많을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참여는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및 만족스러운 사회적지지 관계를 유지시켜주므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Uchino, 2013; Valtorta et al., 2018).

사회참여는 이웃과 네트워크 형성, 상호 신뢰, 사회적지지 확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자신이 사회적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 및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이건영, 조정래, 2024). 따라서 사회참여 경험은 사회에 내

가 속해있다는 소속감과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하며, 이웃 및 지역사회와 신뢰와 상호 호혜성 형성을 통해 필요자원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긍정적인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김혜연, 2011; 남은영, 이재열, 김민혜, 2012; 이혜림, 2020).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는 사회적 지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심리적 안정과 웰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Cohen & Wills, 1985). 사회참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얻는 활동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질이 낮을 때, 사회참여가 낮은 사람들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참여가 높은 사람들은 주거환경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즉, 주거환경의 불편한 요소가 있어도, 사회참여를 통해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거환경의 부정적인 요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관적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다.

사회참여의 조절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견영과 조정래(2024)는 서울 서베이에 참여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위험 인식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고, 박선희, 윤명숙(2024)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박경미와 김민아(2019)는 중·고령의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입증하고, 신별해와 최진혁(2024)은 2022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에 참여한 후천적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의 조절효

과를 입증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6.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는 정적(+)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4.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는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 간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거환경이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상호작용을 할 때 주거환경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두 변수가 상호작용할 때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 개인 간 신뢰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사회참여라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의 효과가 증대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뢰가 높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는 구성원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개인의 웰빙과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Uphoff, 2000). 셋째, 삼원 조절-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통해 주거환경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주거환경의 역할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정책적 접근을 다르게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조절-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 연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대인 신뢰 및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박봉제와 신재구(2021)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슈리더십이 적응적 수행을 매개하여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에서 리더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입증하였고, 박선희와 윤명숙(2024)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여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을 근거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7. 주거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간 관계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는 삼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8. 주거환경, 대인 신뢰, 사회참여의 삼원 상호작용 효과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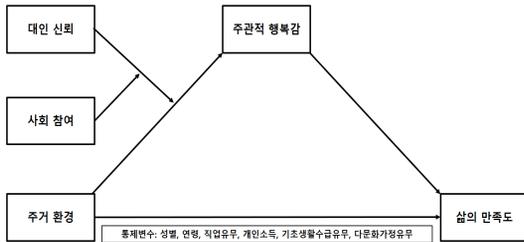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조절-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국민 16,305명)의 원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불평등 크기의 추적 및 결정 요인

을 밝히고,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조사이다(국회미래연구원, 2023).

연구의 독립변수는 국민의 주거환경,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 매개변수는 주관적 행복감, 조절변수 1은 대인 신뢰, 조절변수 2는 사회참여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 차이로 남성 7,993명(49.0%), 여성 8,312명(51.0%)으로 나타났다. 연령 차이로 60대 이상이 5,046명(30.9%)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10대는 754명(4.6%)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로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11,302명(69.3%)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국민은 5,003명(30.7%)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의 차이로 200만원 이상 ~ 299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국민이 4,227명(25.9%)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400만원 이상이 2,038명(12.5%)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유무의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국민이 248명(1.5%), 해당되지 않는 국민이 16,057명(98.5%)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유무의 차이로 다문화 가정이 49명(0.3%), 다문화가 아닌 가정이 16,256명(99.7%)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 구 분   |         | 빈도(명)  | 백분율(%) |
|-------|---------|--------|--------|
| 총 계   |         | 16,305 | 100.0  |
| 성 별   | 남성      | 7,993  | 49.0   |
|       | 여성      | 8,312  | 51.0   |
| 연 령   | 10대     | 754    | 4.6    |
|       | 20대     | 2,199  | 13.5   |
|       | 30대     | 2,292  | 14.1   |
|       | 40대     | 2,871  | 17.6   |
|       | 50대     | 3,143  | 19.3   |
|       | 60대 이상  | 5,046  | 30.9   |
| 직업유무  | 있다      | 11,302 | 69.3   |
|       | 없다      | 5,003  | 30.7   |
| 개인소득  | 소득 없음   | 3,533  | 21.7   |
|       | 200 미만  | 3,368  | 20.7   |
|       | 200~299 | 4,227  | 25.9   |
|       | 300~399 | 3,139  | 19.3   |
| 기초생활  | 400 이상  | 2,038  | 12.5   |
|       | 해당      | 248    | 1.5    |
| 유무    | 비해당     | 16,057 | 98.5   |
| 다문화   | 해당      | 49     | 0.3    |
| 가정 유무 | 비해당     | 16,256 | 99.7   |

##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문항 중 주거환경(4문항), 주관적 행복감(1문항), 삶의 만족도(8문항), 대인 신뢰(2문항), 사회참여(7문항) 총 5개 변수 22문항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변수별 측정도구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

| 구분                                                                                                                                                                                                                                                         | 설문문항     |                                                                                                                                                                                                              |                                                                                                                                                                                                                                                       |                                                                                                                            |
|------------------------------------------------------------------------------------------------------------------------------------------------------------------------------------------------------------------------------------------------------------|----------|--------------------------------------------------------------------------------------------------------------------------------------------------------------------------------------------------------------|-------------------------------------------------------------------------------------------------------------------------------------------------------------------------------------------------------------------------------------------------------|----------------------------------------------------------------------------------------------------------------------------|
| 독립<br>변수                                                                                                                                                                                                                                                   | 주거<br>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사는 동네는 조깅, 산책 같은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다</li> <li>• 내가 사는 동네는 식료품 구입, 식재료 장보기가 용이하다</li> <li>• 내가 사는 동네에는 공공시설(관공서, 도서관, 공원 등)이 충분히 있다</li> <li>• 내가 사는 동네는 안전하다</li> </ul> |                                                                                                                                                                                                                                                       |                                                                                                                            |
|                                                                                                                                                                                                                                                            | 매개<br>변수 | 주관적<br>행복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귀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                                                                                                                            |
|                                                                                                                                                                                                                                                            | 종속<br>변수 | 삶의<br>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li> <li>- 생활수준</li> <li>- 건강</li> <li>- 대인 관계</li> <li>- 안전감</li> <li>- 공동체 소속감</li> <li>- 미래의 안정성</li> <li>- 좋아하는 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양</li> <li>- 동네 환경</li> </ul> |                                                                                                                            |
|                                                                                                                                                                                                                                                            |          |                                                                                                                                                                                                              | 조절<br>변수<br>1                                                                                                                                                                                                                                         | 대인<br>신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는 다음의 각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 하십니까?</li> <li>- 사회적 경제조직</li> <li>- 학부모회 혹은 학교운영회</li> <li>- 종교 모임</li> <li>- 시민 혹은 지역사회 단체</li> <li>-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li> <li>- 교육 혹은 학술 단체</li> <li>- 환경 단체 혹은 여성 단체</li> </ul> |          |                                                                                                                                                                                                              |                                                                                                                                                                                                                                                       |                                                                                                                            |
| 조절<br>변수<br>2                                                                                                                                                                                                                                              |          |                                                                                                                                                                                                              | 사회<br>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혹은 사회복지 혹은 자선 단체</li> <li>- 교육 혹은 학술 단체</li> <li>- 환경 단체 혹은 여성 단체</li> </ul> |

## IV. 연구결과

###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연구의 타당도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 .639, 삶의 만족도 .676, 대인 신뢰 .815, 사회참여 .526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주거환경 .663, 삶의 만족도 .910, 대인 신뢰 .703, 사회참여 .850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 구분       | 삶의<br>만족도 | 사회<br>참여 | 주거<br>환경 | 대인<br>신뢰 |
|----------|-----------|----------|----------|----------|
| 주거환경1    | .117      | -.044    | .724     | .108     |
| 주거환경2    | .158      | -.048    | .722     | -.069    |
| 주거환경3    | .112      | .003     | .754     | .006     |
| 주거환경4    | .145      | -.012    | .639     | .146     |
| 삶의 만족도1  | .705      | -.005    | .065     | .181     |
| 삶의 만족도2  | .742      | -.083    | .046     | -.042    |
| 삶의 만족도3  | .812      | -.011    | .124     | .024     |
| 삶의 만족도4  | .835      | .018     | .100     | .085     |
| 삶의 만족도5  | .816      | .035     | .107     | .049     |
| 삶의 만족도6  | .834      | .038     | .101     | .075     |
| 삶의 만족도7  | .746      | .033     | .097     | .108     |
| 삶의 만족도8  | .676      | .007     | .323     | .123     |
| 대인 신뢰1   | .155      | .001     | .075     | .845     |
| 대인 신뢰2   | .180      | .070     | .102     | .815     |
| 사회참여1    | .001      | .764     | -.052    | .025     |
| 사회참여2    | -.005     | .759     | .014     | -.040    |
| 사회참여3    | -.008     | .526     | -.010    | .123     |
| 사회참여4    | .002      | .700     | -.007    | .054     |
| 사회참여5    | .035      | .821     | .008     | -.010    |
| 사회참여6    | .016      | .837     | -.036    | -.061    |
| 사회참여7    | -.019     | .863     | -.047    | -.035    |
| KMO      |           | .909     |          |          |
| 고유값      | 4.909     | 4.067    | 2.213    | 1.518    |
| 분산설명비(%) | 23.378    | 19.369   | 10.537   | 7.229    |
| 누적분산비(%) | 23.378    | 42.747   | 53.283   | 60.513   |
| 문항 수     | 8         | 7        | 4        | 2        |
| 신뢰도      | .910      | .850     | .663     | .703     |

### 2.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국민이 인식하는 주거환경은 주관적 행복감( $r = .179, p < .01$ ), 삶의 만족도( $r = .331, p < .01$ ), 사회참여( $r = -.054, p < .01$ ), 대인 신뢰( $r = .194, p < .01$ )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 $r = .547, p < .01$ ), 사회참여( $r = -.015, p < .05$ ), 대인 신뢰( $r = .255, p < .01$ )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삶의 만족도는 사회참여( $r = .008, p > .05$ )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대인 신뢰( $r = .293, p < .01$ )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참여는 대인 신뢰( $r = .052, p < .01$ )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4> 기술통계

| 구분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1  | 주거환경    | 3.71 | .58  | 0   | 10  |
| 2  | 주관적 행복감 | 6.67 | 1.30 | 0   | 10  |
| 3  | 삶의 만족도  | 6.26 | 1.26 | 0   | 10  |
| 4  | 사회참여    | 1.25 | .50  | 1   | 5   |
| 5  | 대인 신뢰   | 3.32 | .67  | 1   | 5   |

<표 5> 상관관계

| 구분        | 1       | 2      | 3      | 4      |
|-----------|---------|--------|--------|--------|
| 1. 주거환경   | 1       |        |        |        |
| 2. 행복감    | .179**  | 1      |        |        |
| 3. 삶의 만족도 | .331**  | .547** | 1      |        |
| 4. 사회참여   | -.054** | -.016* | .008   | 1      |
| 5. 대인 신뢰  | .194**  | .255** | .293** | .052** |

N=16,305,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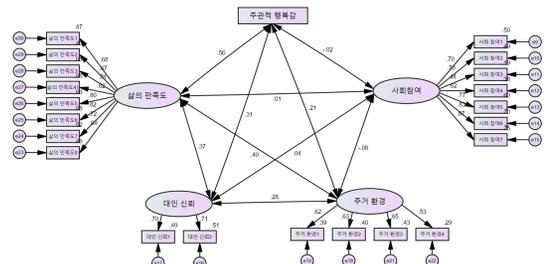
###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가설 검증 전 국민의 주거환경,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사회참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5요인이 RMR .043, GFI .955, RFI .941, IFI .950, TLI .943, RMSEA .049로 가장 적합하였고, 1~3요인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6>, [그림 2]와 같다.

<표 6>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적합도 검증 결과

| 모형  | CMIN ( $\chi^2$ ) | DF  | CMIN /DF | RMR  | GFI  | RFI  | IFI  | TLI  | RMSEA |
|-----|-------------------|-----|----------|------|------|------|------|------|-------|
| 기준  | -                 | -   |          | <.08 | >.9  | >.9  | >.9  | >.9  | <.08  |
| 5요인 | 7915.92           | 200 | 39.58    | .043 | .955 | .941 | .950 | .943 | .049  |
| 4요인 | 14380.38          | 204 | 70.49    | .081 | .921 | .895 | .909 | .897 | .065  |
| 3요인 | 64116.06          | 207 | 309.74   | .078 | .637 | .539 | .588 | .540 | .138  |
| 2요인 | 75594.08          | 209 | 361.69   | .105 | .602 | .462 | .514 | .463 | .149  |
| 1요인 | 125343.54         | 210 | 596.87   | .348 | .440 | .113 | .193 | .113 | .191  |

5요인: 주거환경,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사회참여  
 4요인: 주거환경,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대인 신뢰 + 사회참여  
 3요인: 주거환경,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 대인 신뢰 + 사회참여  
 2요인: 주거환경 +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 대인 신뢰 + 사회참여  
 1요인: 주거환경 + 주관적 행복감 + 삶의 만족도 + 대인 신뢰 + 사회참여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 4. 가설검증

연구가설은 AMOS 경로분석과 Hayes(2017)의 Process Macro 4.2의 Model 1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경로분석 모형적합도 결과는 <표 7>, [그림

3]과 같으며,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충족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로분석 모형적합도

| 모형 | CMIN ( $\chi^2$ ) | DF  | CMIN /DF | RMR  | GFI | RFI | IFI | TLI | RMSEA |
|----|-------------------|-----|----------|------|-----|-----|-----|-----|-------|
| 기준 | -                 | -   |          | <.08 | >.9 | >.9 | >.9 | >.9 | <.08  |
| 결과 | 7357.99           | 135 | 54.504   | .07  | .95 | .92 | .94 | .92 | .057  |

가설 1부터 4까지의 검증은 AMOS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8>,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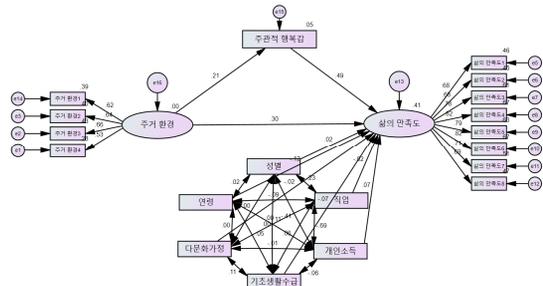
가설 1은 국민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접효과( $\beta=.299, p<.001$ )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주거환경의 질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설 1이 지지되었다. 가설 2는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접효과( $\beta=.213, p<.001$ )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주거환경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가설 2가 지지되었다. 가설 3은 주관적 행복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접효과( $\beta=.485, p<.001$ )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가설 4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총 효과( $\beta=.402, p<.001$ ), 직접효과( $\beta=.299, p<.001$ )와 간접효과( $\beta=.103, p<.001$ )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는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 행복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복감이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심리적 경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표 8> 경로분석 결과

| 가설 | 경로                  | Estimate | S.E.    | C.R.    | 총 효과    | 직접 효과   | 간접 효과 | 결과 |
|----|---------------------|----------|---------|---------|---------|---------|-------|----|
| 1  | 주거환경<br>→ 삶의 만족도    | .746     | .024    | 31.23   | .299*** | .299*** | -     | 채택 |
| 2  | 주거환경<br>→ 행복감       | .696     | .032    | 21.99   | .213*** | .213*** | -     | 채택 |
| 3  | 행복감<br>→ 삶의 만족도     | .371     | .024    | 31.23   | .485*** | .485*** | -     | 채택 |
| 4  | 주거환경 → 행복감 → 삶의 만족도 | .402***  | .299*** | .103*** |         |         |       | 채택 |

통계변수: 성별, 연령, 직업유무, 개인소득, 기초생활유무, 다문화 가정유무

N=16,305, \* $p<.05$ , \*\* $p<.01$



[그림 3] 경로분석 결과

가설 5부터 8까지의 검증은 Hayes(2017)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 4.2 Model 1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신뢰수준 95%, 부트스트랩 20,000개, 조건부 효과 확인(M, M±SD)을 설정하였다.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간 관계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상호작용효과는 <표 9>, <표 10>, [그림 4]와 같다.

독립변수인 국민의 주거환경은 매개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미( $\beta=.293, p<.001$ )하였다. 조절변수 1인 대인 신뢰도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으로 유의미( $\beta=.441, p<.001$ ) 하였지만, 조절변수 2인 사회참여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민의 주거환경과 대인 신뢰의 상호작용항은 정적(+)으로 유의미( $\beta=.059, p<.05$ )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데, 이는 대인 신뢰 수준에 따라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설 5는 지지되었다.

국민의 주거환경과 사회참여의 상호작용항은 정적(+)으로 유의미( $\beta=.235, p<.001$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참여 수준에 따라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가설 6은 지지되었다.

<표 9> 삼원 상호작용 효과(매개변수: 주관적 행복감)

| 구 분                            | 매개변수 모형(주관적 행복감)    |           |            |            |       |       |
|--------------------------------|---------------------|-----------|------------|------------|-------|-------|
|                                | Coeffect            | SE        | t값         | LLCI       | ULCI  |       |
| 상 수                            | 6.800               | .049      | 137.864*** | 6.704      | 6.897 |       |
| 독립변수                           | 주거환경                | .293      | .017       | 17.149***  | .259  | .326  |
| 조절변수1                          | 대인 신뢰               | .441      | .015       | 29.608***  | .412  | .470  |
| 조절변수2                          | 사회참여                | -.006     | .021       | -.297      | -.047 | .035  |
| 상호 작용항                         | 주거환경 × 대인 신뢰        | .059      | .023       | 2.525*     | .013  | .104  |
|                                | 주거환경 × 사회참여         | .235      | .035       | 6.673***   | .166  | .304  |
|                                | 대인 신뢰 × 사회참여        | .071      | .032       | 2.214*     | .008  | .133  |
|                                | 주거환경 × 대인 신뢰 × 사회참여 | -.176     | .041       | -4.307***  | -.256 | -.096 |
| 통계변수                           | 성 별                 | .098      | .021       | 4.602***   | .056  | .140  |
|                                | 연 령                 | -.081     | .006       | -13.041*** | -.093 | -.069 |
|                                | 직업유무                | -.053     | .029       | -1.809     | -.110 | .004  |
|                                | 개인소득                | .067      | .011       | 6.137***   | .046  | .089  |
| 다문화가정유무                        | 기초생활유무              | -.760     | .080       | -9.553***  | -.916 | -.604 |
|                                | 다문화가정유무             | .493      | .177       | 2.780      | .145  | .840  |
| Highest order test             | 주거환경 × 대인 신뢰 × 사회참여 | $R^2$ 변화량 |            | .001       |       |       |
|                                |                     | F         |            | 18.548***  |       |       |
| 모형 요약                          | $R^2$               |           | .108       |            |       |       |
|                                | F                   |           | 152.397*** |            |       |       |
| 국민의 주거환경과 대인신뢰의 조건부 상호작용 효과 검정 |                     |           |            |            |       |       |
| 사회참여                           | Effect(B)           | F         | df1        | df2        |       |       |
|                                | -.2549              | .1037     | 15.633***  | 1          | 16291 |       |
|                                | .0000               | .0588     | 6.375*     | 1          | 16291 |       |
|                                | .5049               | -.0302    | 1.019      | 1          | 16291 |       |

N=16,305, \* $p<.05$ , \*\* $p<.01$ , \*\*\* $p<.001$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 $\beta=.071, p<.05$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동시에 높을 경우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효과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 주거환경, 대인 신뢰, 사회참여의 삼중 상호작용 값은 부적(-)으로 유의미( $\beta=-.176, p<.001$ )한 것으로 나타나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가설 7은 지지되었다. 이는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수준에 따라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가 복합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주거환경과 대인 신뢰 간 상호작용이 사회참여 조건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참여가 평균 이하일 때( $=-.2549$ ) 상호작용 효과는 매우 유의미( $p<.001$ )하였다. 사회참여가 평균일 때( $=.0000$ ) 상호작용 효과는 약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5$ ). 사회참여가 평균 이상일 때( $=.5049$ )는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거환경과 대인 신뢰 간 상호작용 효과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0> 부트스트래핑 간접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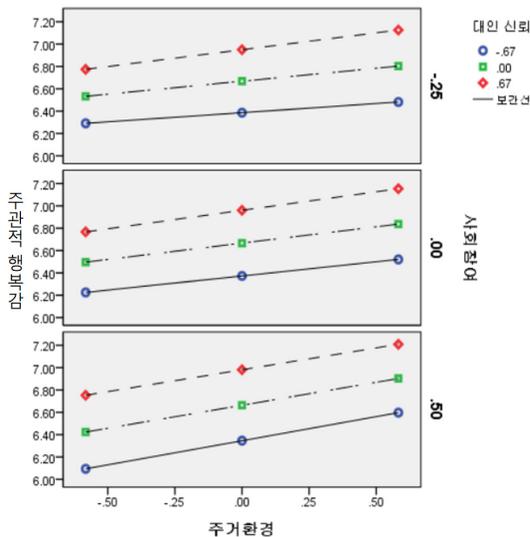
|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상호작용에 따른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      |           |        |       |       |            |       |       |
|---------------------------------------------------|------|-----------|--------|-------|-------|------------|-------|-------|
| 대인 신뢰                                             | 사회참여 | Effect(B) | se     | t값    | LLCI  | ULCI       |       |       |
|                                                   |      | -.6669    | -.2549 | .1636 | .0248 | 6.5916***  | .1149 | .2122 |
|                                                   |      | -.6669    | .0000  | .2535 | .0222 | 11.4087*** | .2099 | .2970 |
|                                                   |      | -.6669    | .5049  | .4316 | .0321 | 13.4641*** | .3687 | .4944 |
|                                                   |      | .0000     | -.2549 | .2327 | .0196 | 11.8996*** | .1944 | .2710 |
|                                                   |      | .0000     | .0000  | .2927 | .0171 | 17.1491*** | .2592 | .3261 |
|                                                   |      | .0000     | .5049  | .4114 | .0242 | 16.9753*** | .3639 | .4589 |
|                                                   |      | .6669     | -.2549 | .3018 | .0276 | 10.9449*** | .2478 | .3559 |
|                                                   |      | .6669     | .0000  | .3318 | .0239 | 13.8934*** | .2850 | .3787 |
|                                                   |      | .6669     | .5049  | .3913 | .0307 | 12.7425*** | .3311 | .4515 |

N=16,305, \* $p<.05$ , \*\* $p<.01$ , \*\*\* $p<.001$

"LLCI / ULCI = 95% 신뢰구간 내 부트스트랩 하한 값 / 상한 값"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에 따른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조건부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 값이 모두 낮거나 평균일 때보다,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 신뢰가 낮을 때도 사회참여가 평균 이상이면 주거환경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에서 LLCI와 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국민의 주거환경, 대인 신뢰, 사회참여의 값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의 예측값은 [그림 4]와 같다. 주거환경 수준이 올라갈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주거환경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평균 이상일 때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환경, 대인 신뢰, 사회참여가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행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상호작용효과

국민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국민의 주거환경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beta=.528, p<.001$ )이 있었고, 주관적 행복감도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 $\beta=.468, p<.001$ )이 있었다. 이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주관적 행복감 모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예측 변수임을 시사한다.

<표 11> 삼원 조절-매개효과 분석

| 구분      | 종속변수 모형(삶의 만족도) |                     |           |            |       |       |
|---------|-----------------|---------------------|-----------|------------|-------|-------|
|         | Coeffect        | SE                  | t값        | LLCI       | ULCI  |       |
| 상수      | 3.397           | .057                | 59.206*** | 3.285      | 3.510 |       |
| 독립변수    | 주거환경            | .528                | .014      | 38.725***  | .501  | .554  |
| 매개변수    | 주관적 행복감         | .468                | .006      | 76.223***  | .456  | .480  |
|         | 성별              | .036                | .017      | 2.115*     | .003  | .070  |
|         | 연령              | -.102               | .005      | -20.220*** | -.112 | -.092 |
| 통제변수    | 직업유무            | -.053               | .024      | -2.271*    | -.099 | -.007 |
|         | 개인소득            | .067                | .009      | 7.592***   | .050  | .084  |
|         | 기초생활유무          | -.683               | .064      | -10.606*** | -.809 | -.557 |
| 다문화가정유무 |                 | -.316               | .143      | -2.213*    | -.597 | -.036 |
|         | 모형              | R <sup>2</sup> .381 |           |            |       |       |
| 요약      | F 1256.143***   |                     |           |            |       |       |

N=16,305, \* $p<.05$ , \*\* $p<.01$ , \*\*\* $p<.001$

"LLCI / ULCI = 95% 신뢰구간 내 부트스트랩 하한 값 / 상한 값"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간접효과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표 12>과 같다.

먼저, 국민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B=.528$ 로 95% 신뢰구간 내 부트스트랩 LLCI와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미하였다(.049~.104).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대

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한 결과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평균 이상일수록 간접효과는 강해지며,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모든 조건에서 95% 신뢰구간 내 부트스트랩 LLCI와 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가장 큰 간접효과는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모두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

<표 12>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 직접효과(국민의 주거환경 → 삶의 만족도)                   |        |           |          |          |          |
|-------------------------------------------|--------|-----------|----------|----------|----------|
| Effect(B)                                 | se     | t값        | LLCI     | ULCI     |          |
| .528                                      | .014   | 38.725*** | .501     | .554     |          |
| 조건부 간접효과<br>(국민의 주거환경 → 주관적 행복감 → 삶의 만족도) |        |           |          |          |          |
| 대인 신뢰                                     | 사회참여   | Effect(B) | BootSE   | BootLLCI | BootULCI |
| -.6669                                    | -.2549 | .077      | .014     | .049     | .104     |
| -.6669                                    | .0000  | .119      | .013     | .094     | .144     |
| -.6669                                    | .5049  | .202      | .020     | .164     | .242     |
| .0000                                     | -.2549 | .109      | .010     | .090     | .129     |
| .0000                                     | .0000  | .137      | .009     | .119     | .155     |
| .0000                                     | .5049  | .192      | .014     | .166     | .220     |
| .6669                                     | -.2549 | .141      | .014     | .115     | .168     |
| .6669                                     | .0000  | .155      | .012     | .131     | .179     |
| .6669                                     | .5049  | .183      | .017     | .150     | .214     |
| 삼원 조절-매개지수                                |        |           |          |          |          |
| Index                                     | BootSE | BootLLCI  | BootULCI |          |          |
| -.0824                                    | .0243  | -.1332    | -.0375   |          |          |
|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                              |        |           |          |          |          |
| 사회참여                                      | Index  | BootSE    | BootLLCI | BootULCI |          |
| -.2549                                    | .0485  | .0143     | .0206    | .0766    |          |
| .0000                                     | .0275  | .0132     | .0018    | .0531    |          |
| .5049                                     | -.0141 | .0183     | -.0517   | .0199    |          |

N=16,305, \* $p < .05$ , \*\* $p < .01$ , \*\*\* $p < .001$   
 “LLCI = 95% 신뢰구간 내 부트스트랩 하한 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부트스트랩 상한 값”

여의 삼원 조절-매개 지수값은  $-.0824$ 이며,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1332 \sim .0375$ ).

조건부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참여가 평균 이하( $-.2549$ )일 때, 조절된 매개효과는  $.0485$ 로 유의미( $.0206 \sim .0766$ )하였고, 사회참여가 평균일 때( $.0000$ ), 조절된 매개효과는  $.0275$ 로 유의미( $.0018 \sim .0531$ )하였다. 또한, 사회참여가 평균 이상( $.5049$ ) 조절된 매개효과는  $-.014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0517 \sim .0199$ ). 이러한 결과는 사회참여가 평균 이하나 평균일 때는 대인 신뢰가 주거환경의 간접효과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미치지만, 사회참여가 평균 이상일 때는 그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설 8은 지지되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와 이러한 관계에서 대인 신뢰의 조절효과 및 사회참여의 삼원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주거환경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거환경의 질이 좋을수록 국민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용욱 등(2023), 이한나와 김승희(20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

항뿐만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환경이 좋으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 행복감은 다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박은양과 유현희(2022), 허은(202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의 긍정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진영과 조정래(2024), 최진혁(202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서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의 긍정적인 효과가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강화되며,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더 높은 삶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이 단순히 물리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조합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확장을 이루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대인 신뢰와 사회참여의 복합적 상호작용(삼원 조절효과)을 확인함으로써 주거환경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주거환경 연구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대인 신뢰가 주거환경의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예: 지역 주민 간 협력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활동)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주거환경의 효과가 증대되므로 자원봉사,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등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여 국민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할 때, 물리적 환경(안전, 청결,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웃 간 신뢰, 참여 기회 제공)을 동시에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취약 계층의 주거환경과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이론적·실천적·정책적 시사점에 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특정 시점에서 수집된 횡단자료로, 국민의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부터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수행 중인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종단 분석함으로써 시간 흐름에 따른 국민의 주거환경 인식, 태도, 행동 차이를 분석한다면 인과관계를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 연구모형에서도 성별이나 연령,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영향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단순히 통제변수로서만 활용하였고, 그 차이점을 분석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분류 및 영향력 차이를 분석한다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23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요소를 파악 및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하여 수행한다면 조금 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더불어 질적연구방법인 인터뷰나 문헌 등의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나경 (2024). 광주광역시 이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대한보건연구*, 50(1), 133-150.
- 김상호 (2015). 수도권 도시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주, 서정렬. (2013).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주거선호특성 분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1(1), 37-49.
- 김용욱, 김세희, 황준원, 조미정 (2023). 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이 주거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른 연령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토지주택연구*, 14(2), 19-34.
- 김운욱, 박병남, 김갑열 (2016).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동산학보*, 64, 227-240.
- 김지영, 김은정 (2019).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지역별 근린환경 비교. *부동산분석*, 5(1), 77-94.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민간 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 민간자원 연계사업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13(3), 1-29.
- 남은영, 이재열, 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 류영주, 양수진 (2017). 내재적·친사회적 동기와 삶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 (Grit)과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4), 93-115.
- 박대훈, 장영철, 김진욱 (2015). 감정노동이 종업원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상사 신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글로벌경영학회지*, 12(3), 293-320.
- 박봉제, 신제구 (2021). 이슈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수행의 매개효과와 리더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4(4), 615-640.
- 박선숙 (2023). 주거 특성이 노인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4(3), 85-102.
- 박선희, 윤명숙 (2024). 중년기 성인의 외로움과 주관적 웰빙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 매개효과와 사회참여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2(2), 61-85.
- 박은영, 유현희 (2022).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협동심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Grit),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4(12), 857-870.
- 송웅범, 조준, 윤동열 (2023). 공공기관의 거래적 리더십이 구성원 대인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공정성과 상사 신뢰의 조절된 매개효과. *생산성연구*, 37, 183-217.
- 신별해, 최진혁 (2024). 장애로 인한 차별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참여의 조절효과.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 67(2), 93-107.

- 신은경, 박지영 (2008). 지체장애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가족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보장연구*, 24(1), 259-281.
- 신화경, 조인숙 (2015). 주거환경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2), 57-66.
- 양승민, 최재성 (2021).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이 건강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존분석: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 13년간 분석. *한국노년학*, 41(4), 547-566.
- 유민상 (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미리, 이현정, 홍세희 (2020). 어머니와 자녀의 그릿 (Grit) 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교육문제연구*, 33(3), 1-24.
- 이건영, 조정래 (2024). 위험 인식, 사회참여, 그리고 주민의 행복감: 서울시 주민의 사회참여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6(3), 541-64.
- 이민아 (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U자형 관계와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한국사회학*, 47(4), 171-200.
- 이민아, 김정민 (2021). 폭력피해와 범죄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인신뢰의 조절효과. *조사연구*, 22(3), 109-135.
- 이주왕, 김재태 (2023).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과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비교분석. *대한부동산학회보* 41(4), 205-222.
- 이지원, 이기학 (2015).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4), 953-976.
- 이한나, 김승희 (2021). 주거빈곤아동의 주거만족 영향요인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강원도 18 개 시·군의 주거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60(3), 403-422.
- 임선미, 이보영 (2016). 중장년층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1), 49-63.
- 임정하, 김정민, 강현지, 조은영 (2017). 부부의 행복추구경향과 행복증진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4(2), 157-177.
- 최가영, 정재원, 이희라, 이해나 (2023). 직장 내 연령차별이 중노년기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사회참여의 완충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64, 5-33.
- 최병소, 이명훈 (2021). 노인이 지각하는 개인-환경 적합성, 주거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520-536.
- 최은영. (2019). 주거환경의 지역격차와 균형발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한재원, 이수기 (2019).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 분석: 2016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54(5), 33-47.
- 허은.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 및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793-809.
- 허중호, 민보경, 이상직, 이채정. (2023).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3차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 Arpino, B., & De Valk, H. (2018). Comparing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and natives across Europe: The role of social contac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7, 1163-1184.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Gifford, R. (2007). Environmental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Kraut, R. E., & Johnston, R. E. (1979). Social and emotional messages of smiling: an ethologic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9), 1539.
- Leventhal, T., & Newman, S. (2010). Housing and child develop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9), 1165–1174.
- Lewis, J. D. (1985). Trust as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 967–985.
- Lombardo, p., Jones, W., Wang, L., Shen, X., & Goldner, E. M. (2018). The fundamental associ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results from successive waves of a Canadian national survey. *BMC public health*, 18, 1–9.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ayer, R. C., & Davis, J. H. (1999). The effect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on trust for management: A field quasi-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1), 123.
- Pavot, W., & Diener, E. (2008).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the emerging construct of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2), 137–152.
- Peters, L. H. (1977). Cognitive models of motivation, expectancy theory and effort: An analysis and empirical tes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0(1), 129–148.
- Putnam, R. (1997).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Frontier issues in economic thought*, 3, 211–212.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Schuster.
- Reynolds, L. (1997). The trust effect: Creating the high trust,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 Schoorman, F. D., Mayer, R. C., & Davis, J. H. (2007).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past, present, and fu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2), 344–354.
- Sirgy, M. J., & Cornwell, T. (2002). How neighborhood features affect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 79–114.
- Strine, T. W., Chapman, D. p., Balluz, L. S., Moriarty, D. G., & Mokdad, A. H. (2008). The associ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chronic illness, and health behaviors among US community-dwelling adult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3, 40–50.
- Uchino, B. N. (2013).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social ties and health: On building stronger bridges with relationship sci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0(2), 155–162.

- Uphoff, N. (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experience of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s*. The World Bank.
- Valtorta, N. K., Kanaan, M., Gilbody, S., & Hanratty, B. (2018).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 *25*(13), 1387–1396.
- Veenhoven, R.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Is that possible and desir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605–629.
- Waitley, D. (1995). *Empires of the Mind*. Nightingale-Conant Corporation.

투고일자: 2024. 12. 1.

심사일자: 2025. 1. 24.

게재확정일자: 2025. 2. 7.

#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The Three-Way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HyeonJong Ko JeongHee Kim JunHyeok Kang  
SungKyunKwan University EulJi University

This study structurally analyzed the effect of an individuals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ir life satisfaction when mediated by subjective well-being. It also aimed to verify the three-way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in this relationship.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the 2023 Korean Happines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and 16,305 respondents. Th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AMOS path analysis and Hayes (2017) process Macro Model 11.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residential environment had a positive (+) effect on both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Second, subjective well-be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Third,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moderated the effec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n subjective well-being. Fourth, a three-way interaction effect was observed between residential environment,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This interaction further demonstrated a three-way moderated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expansion of the research area by verifying the three-way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als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hat enhances trust and participation when formulating policies, and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improving national life satisfaction.

*Keywords: Residential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Subjective Well-being, Interpersonal Trust, Social participation*